

# 노년기 경제적 복지를 위한 사회투자정책의 방향

## ：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의 활용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on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in Korea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전임강사 서지원

Dep.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Seo, Jiwo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Human capital theory and social capital theory provide a framework for analyzing economic well-be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on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The data from the 1st wave of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were used (n=3,426).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are both resources that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Second,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on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were relatively higher tha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Third,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to increasing economic well-being varied by sex, age, and region.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social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were provided.

**Key Words :** 노년기(the elderly),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경제적 복지(economic well-being), 인적자본(human capital), 사회자본(social capital)

\* 주저자, 교신저자 : 서지원 (jwseo@hanmail.net)

## I. 서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화가 진전되어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노인인구(만65세 이상)가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한 한국 사회는 2018년에 노인인구가 14%에 이르는 고령사회(aged society)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 역시 1985년 6.5%에서 2007년 13.8%로 증가하였고, 유년 인구(0~14세)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인 노령화 지수 역시 같은 기간 14.2%에서 55.1%로 급증하였다(통계청, 2007).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동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대응을 필요로 한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평균근로 연령의 상승, 저축·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인하여 국가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향후 조세 및 사회보장비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부담에 따른 대응도 요구된다(대한민국정부, 2006).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복지욕구 증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2006년 발표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고령화 부문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년기 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을 중요한 정책목표

로 설정하고 다양한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6).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이 각각 75.7세와 82.4세로 나타나(통계청, 2007) 길어진 노년기의 생산활동 참여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은퇴연령은 54.1세에 불과하다(한국노동연구원, 2005). 또한 다른 OECD 국가 노인에 비해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노년기의 주된 소득원이 되지 못하며 비공식적 소득원천으로서의 사적이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 공적이전에 대한 소득 의존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재 공적연금, 공공부조 등 국가로부터의 공적이전 소득이 있는 계층은 전체 노인인구의 30.8%에 불과하여 대다수 노인인구는 공적이전 소득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대한민국정부, 2006).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sup>1)</sup>'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현행 공적연금 제도의 보완에 따라 국민연금 수혜계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대한민국정부, 2006), 이러한 제도의 시행만으로는 단기간에 걸쳐 노년기 경제적 복지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보편적으로 확대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년기 경제적 부양주체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인식과 노인정책에 대한 수요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노후 생활비 제공주체를 국가로 인식하는 노인의 비율을 보면, 1994년 20.5%에서 2004년 40.9%로 증가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또한 노인부양의 책임과 관련하여 노인에 대한 부양을 노인 자신과 자식 세대의 책임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2년 70.7%에서 2006년 63.4%로 낮아

1)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2008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4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월 64만원 이하에 해당)인 노인을 대상(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1호)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2008년의 경우 8~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등지원 한다.

진 반면, 가족과 정부·사회의 책임이라는 응답한 비율은 18.2%에서 26.4%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7). 이처럼 노년기 보호와 돌봄에 대한 책임의 사회적 공유에 대한 사회인식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지출을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과거 전통적 복지론과 차별화되는 ‘사회투자론’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성화되고 있다. 소득 보장을 제도화하여 시장의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한 ‘케인지언 복지국가’의 전략과 달리, ‘사회투자국가(the social investment state)’는 세계화와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경제성장과 복지 사이의 선순환 구조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사회투자전략의 방향을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과 훈련 기회의 제공을 통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대하여 개인이 역량을 형성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하고,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사회복지급여 등 보호를 제공하기보다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과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설정한다(양재진, 2007). 또한 사회투자국가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자양분을 주는 사회적 실체인 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것을 국가의 주요 경제전략으로 강조한다(임채원, 2006). 이는 전통적 복지국가가 지닌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정책 실현을 추구하고자 ‘제3의 길’을택한 영국·캐나다 등 구미 선진국의 새로운 복지전략이기도 하지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사회 변동에 대해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사회정책 모델로서도 적합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김연명, 2007; 김혜원, 2007; 임채원, 2006).

특히 과거 참여정부의 “비전 2030”에서 인

적자원 고도화와 사회자본의 확충을 각각 4대 목표에 포함하여 설정하고 있어, 노인정책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그에 따른 사회정책의 투자 방향성 정립에 있어서 사회투자론이 중요한 정책적 배경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최근 출범한 새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 하의 국정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 역시 국정의 목표로 추구하는 신발전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평생 직업능력 개발 등을 포함하는 “인재대국”과 사회자본의 함양을 포함하는 “능동적 복지”를 정책부문별 준거가 되는 5대 국정지표에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따라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사회투자론적 관점과 최근 사회정책의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고령화시대 노년기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정책에 대한 논의를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시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지금까지 노년기 경제적 복지의 결정요인으로 인적자본의 효과와 사회자본의 효과를 별도로 분석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을 모두 포함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사회자본의 개념화를 토대로 경제적 가치를 논의한 경험적 연구도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규모의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한국 노인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수준이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성, 연령, 지역 요인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사회투자전략의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경제적 복지의 개념

경제적 복지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

게 정의되나 대체로 개인이나 가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의 경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강이주·김영신·허경옥, 2006). 경제적 복지는 개인이나 개별 가계가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각종 사회경제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제적 복지가 지난 복합적인 차원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측정방식에 따라 개념을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경제적 복지는 측정의 관점에 따라 객관적 경제적 복지와 주관적 경제적 복지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경제적 복지는 소득, 자산, 소비 수준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경제적 적정도(economic adequacy), 경제적 안전도(economic security), 경제적 안정도(economic stability)를 측정한다(강이주 외, 2006). 한편, 주관적 경제적 복지는 객관적 경제지표, 즉 소득, 자산, 소비 수준 등에 대해 경제적 적정도, 경제적 안전도, 경제적 안정도를 인지하고 평가한 결과 개인이나 가계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 수준으로 측정한다(Burkhauser & Duncan, 1988; MacDonald & Douthitt, 1992). 경제적 복지를 소유자원을 토대로 객관적·절대적이며 관찰 가능한 경제지표에 의한 평가와 함께, 주관적인 만족감 역시 중요한 경제복지의 구성요소가 된다(노자경·최은숙, 1991;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또한, 이러한 객관적 경제적 복지와 주관적 경제적 복지는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에 따라 다시 분류할 수 있다(Wilhelm, Iams, & Rudd, 1987). 즉, 절대적 지표 또는 절대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절대적 경제복지와 타인이나 준거집단과의 비교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상대적 경제복지로 나뉜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복지 관련 연구에서는 단순히 현금 소득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대적 경제복지 측정이 적절하다(Weicher, 1999). 이처럼 ‘경제적 복지’라는 용어는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 자신의 경제적 상황 또는 재정적 상황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인 주관적 경제적 복지수준을 자신의 동년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한 경제적 복지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 2. 인적자본과 노년기 경제적 복지

1960년대 이래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인 인적자본은 생산수단과 투자의 산물로서 인식한 Schultz(1961)의 연구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지식과 기술 습득, 건강 등의 경제적 가치 산출에 주목하여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한 Becker(1964)의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많은 경험적 연구(Duncan, Boisjoly, & Smeeding, 1996; Mincer, 1974; Morgan & Duncan, 1982; Powell & Parcel, 1997)는 인적자본 이론을 토대로 학력, 취업, 건강 등 인적자본 변수가 소득수준 등 경제적 복지 수준에 대하여 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다른 경제적 자원을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개인의 인성, 능력, 기술, 습성 등을 가능하게 하며(Rice & Tucker, 1986), 다른 물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사회경제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Morgan & Duncan, 1982). Schultz(1981)의 연구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인적자본이 지난 경제적 가치를 주장하였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미국의 국가적 정책과제로 강조한 Hamilton Project(The Brookings Institution, 2006)에서도 인적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인력과 기술에 체화

된 인적자본의 가치는 민간소유 상업건물과 설비의 가치(\$13조)의 약 3.7배에 해당하는 \$48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생애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질수익률은 연 7~10%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이론은 사람들이 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다르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인적자본과 경제적 복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근거가 되어 왔다(Bryant, 1990).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김정석, 2003; 최선화, 1999)에서도 학력과 취업여부 등의 인적자본이 경제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수준 역시 사람마다 다른 조합의 선택을 하도록 하여 자본화를 위한 개인의 역량을 실현하는데 있어 제약 요소로 작용하며(Lin, 2001), 교육이나 훈련 등 다른 인적자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복지를 위해 의식적으로 투자해야 할 중요한 인적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다(Bryant, 1990). 특히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 및 정신기능이 저하되고 만성퇴행성 질환 등 건강문제가 나타나며(윤진, 1985; 조유향, 1992), 무력감, 피로감, 식욕감퇴, 사고와 집중력 감퇴 등을 일으키는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Beck, 1967)는 점에서 노년기의 신체적 노화에 따른 건강수준과 함께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건강수준과 노년기 경제적 복지 간의 관계를 통해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에서 사회투자국가 혹은 사회투자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애 초기는 물론 생애전반에 걸쳐 교육, 훈련, 생산적 활동 참여, 건강 등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중요한 사회투자전략으로 강조되고 있다(임채원,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개인의 주요 인적자본 변수로서 근로수준, 학력,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경제적 복지에 대한 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

### 3. 사회자본과 노년기 경제적 복지

사회자본은 신고전경제학 이론을 확장시켜 한 사회구조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 및 교환이 지니는 경제적 중요성을 규명하며, 공유된 가치, 신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으로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Field, 2003). 사람들 간의 관계적 속성에서 비롯한 사회적 자본은 그것이 지난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가치의 발견에서 비롯하였다. 우선 사회자본의 개념화에 기여한 Bourdieu, Coleman, Putnam의 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Bourdieu의 사회적 자본이란 상호인정과 상호 인식으로부터 다소 제도화된 지속적 네트워크의 소유에 따라 얻는 현재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의 총량은 한 사람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범위와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들의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의 총량과 같다(Bourdieu, 1986). 사람들은 이러한 도구적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에 투자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를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Portes, 1998). Coleman(2000)은 관찰 가능한 물질적 형태로 체화되어 생산을 위해 투자되는 물적자본이나 지식이나 기술 등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어 가시적이지는 않으나 생산성에 기여하는 인적자본과 달리, 사회자본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내재하며 행위

자들 사이의 관계 구조의 특성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았다. 특히 신뢰와 규범을 공유하는 집단이 가족관계와 지역사회에서 축적되는 사회자본이 인적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강한 연대의 가족이나 지역공동체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Putnam (2000)의 사회자본에 관한 논의는 공동체 내에서의 협력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의 속성, 즉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즉 이와 같은 사회자본이 지난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자본의 축적되어 사회관계망이 사회적 지지, 신뢰, 상호이해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경우 정치적 안정,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대면적인 상호작용에 기초한 자발적인 결사체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자본에 대한 다양한 개념화에 기반을 둔 여러 연구(Arrow, 2000; Grootaert & Bastelaer, 2001; Lin, 2001; World Bank, 1998)는 사회자본이 지난 사회경제적 가치를 강조하였으며, 다면적인 속성을 지난 사회자본의 개념으로 인해 개인, 조직, 지역, 국가 간 비교 등 다양한 분석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Hawkins, 2003; Knack & Keeper, 1997; Narayan & Pritchett, 1999).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사회자본은 한 개인의 내면에 자리한 인적자본에 비하여 투자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수준이 이른 것은 아니지만, 사회자본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정책적 투자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이영현 · 나영선 · 김안국 · 유한구 · 김미란 · 이재혁, 2006). 즉, 사회자본은 사회규범, 연결망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으로 기능하며 지역 공동체가 하나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

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자본은 타인에 대한 믿음과 자기성찰을 통해 개인적인 삶의 질 개선이나 인류 전체의 문명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연결망을 통해 유용한 정보의 흐름을 촉진시킨다. 특히, 사회자본은 개인이 한 사회 내에서 소속감과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경험으로서 유용한 일상적 자산이 된다. 따라서 사회자본이 풍부한 지역사회 공동체는 범죄율이 낮으며 주민의 건강수준이 높고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와 성취도가 높다. 또한 축적된 사회자본을 통해 지역공동체 내의 경제활동도 활발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영선 · 이재열 · 한준상 · 이경욱 · 한성안,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계망, 신뢰와 호혜성, 그에 따른 결과나 효용성 등 다양한 사회자본의 개념 가운데 사회자본의 결과 및 효용성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노인 개인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노년기 가족 · 친족 및 사회적 연계망과 함께 다양한 참여 동기에 따른 사회적 참여 등 구조적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노년기의 사회적 지지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년기 건강(구인자, 2001; 김미혜 · 정진경, 2003; 이승미, 2002; 이신숙 · 차용은, 2003; 장인순, 2006; 전혜정, 2004a; 전혜정, 2004b; Willigen, 2000) 혹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나 삶의 질(김수정, 2006; 박성희 · 이지현, 2006; 손신영, 2006; 안경숙, 2005; 유성호, 1997; 이상구, 1998; 이신숙, 1997; 채수원, 오경옥, 1992), 심리적 안녕감(이정화 · 한경혜 · 박공주 · 이한기, 2003; 조윤주, 2007)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가족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관계망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참여가 경제적 만족도를 포함하는 개념인 노년기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관계에

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적 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며(박성희·이지현, 2006; 한경혜·1999; 현은민, 1996), 특히 배우자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거주유형은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희·이지현, 2006; 유성호, 1997; 이정화 외, 2003). 한편, 가족관계 이외에도 형제자매, 친구, 동료, 이웃이 제공하는 도구적 지지 및 정서적 지지 역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이신숙, 1997; 전길량·김정옥, 2000). 특히, 사회경제적 책임이 감소하며 역할의 상실감을 경험하는 노년기의 사회관계망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종교 활동, 여가스포츠 모임 참여, 자원봉사활동, 사회단체 가입 등 사회적 참여가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정진경, 2003; 김수정, 2006; 박성희·이지현, 2006; 이상구, 1998). 이처럼 노년기의 사회적 지지나 사회적 참여가 건강, 심리적 안녕감, 삶의 질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회적 지지나 사회적 참여를 사회자본으로 개념화하여 그것이 지난 노년기 사회경제적 가치에 집중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가지는 가족, 친지,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연결망의 지지와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적 참여 특성을 각각 사회자본의 하위개념으로 분류하여 경제적 복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의 제1차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과정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학술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2007년 11

월 공개된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 방식(CAPI)을 사용하여 2006년 전국(제주도 제외)에 걸쳐 만 45세 이상 인구 10,2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관한 본 연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만족도로 나뉘어 조사된 7개 설문영역에 걸쳐 필요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I> 소득 및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할 때, 인적자본 수준과 사회자본 수준이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II> 소득 및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할 때,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대한 인적자본 수준과 사회자본 수준의 상대적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III> 소득 및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할 때, 인구학적 변수(성, 연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대한 인적자본 변수와 사회자본 변수의 효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연구모델

우선 <연구문제 I>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득 및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다음 모델을 설정하였다.

모델 I :  $EW = f(HC, SC; C)$ ,

EW = 경제적 복지,

HC = 인적자본 변수,

SC = 사회자본 변수,

$C =$  통제 변수(소득 및 인구학적 변수).

<연구문제 II>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모델 II-1 :  $EW = f(C)$ ,

모델 II-2 :  $EW = f(HC ; C)$ ,

모델 II-3 :  $EW = f(SC ; C)$ .

노년기의 인구학적 특성, 즉 성별(남성/여성), 연령(만75세 미만 연령의 전기노인/만75세 이상 연령의 후기노인), 지역(대도시/중소도시/읍면)에 따라 경제적 복지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설정된 <연구문제 III>의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모델 III-1:  $EW = f(HC, SC ; C)$ [남성노인],

모델 III-2:  $EW = f(HC, SC ; C)$ [여성노인],

모델 III-3:  $EW = f(HC, SC ; C)$ [전기노인],

모델 III-4:  $EW = f(HC, SC ; C)$ [후기노인],

모델 III-5:  $EW = f(HC, SC ; C)$ [대도시],

모델 III-6:  $EW = f(HC, SC ; C)$ [중소도시],

모델 III-7:  $EW = f(HC, SC ; C)$ [읍면].

####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표 1>에서 정의되었다. 우선 종속변수인 경제적 복지는 동년배에 비하여 응답자가 느끼

는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100점 만점으로 측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경제생활만족도를 노년기 경제적 복지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인적자본 변수, 사회자본 변수, 통제변수로 나뉜다. 우선 인적자본 변수는 근로형태, 학력,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등 4개 변수를 포함한다. 근로형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집단(기준), 임금노동, 자영업, 무급가족노동의 4집단으로 분류하였고, 학력은 초졸 이하(기준), 중졸, 고졸 이상의 3집단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신체적 건강은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지수와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지수의 합<sup>2)</sup>으로 측정하였으며, 측정치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정신적 건강은 CES-D10 척도<sup>3)</sup>를 사용하여 우울증 여부를 측정하였다.

둘째, 사회자본 변수는 도구적 관계망과 정서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 등 3가지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10개 변수를 포함한다. 도구적 관계망은 각각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녀의 수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형제자매의 수로 측정한 자녀의 금전적 지원, 자녀의 비금전적 지원, 형제의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적 관계망은 배우자 동거, 자녀와의 동거,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친구의 정서적 지지로 측정되었다. 배우자 동거는 독신,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인해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사회적 참여는

2) 옷 갈아입기, 세수/양치/머리감기, 목욕/샤워하기, 식사하기,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 7가지 활동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한 ADL 지수와 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사기, 금전관리하기, 전화 걸고 받기, 약 챙겨먹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한 IADL 지수의 합을 의미한다.

3) CES-D10 우울증 척도는 다음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일주일간 1)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귀찮고 괴롭게 느껴졌습니까? 2)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 힘드셨습니까? 3)많이 우울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4)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지셨습니까? 5)비교적 잘 지냈다고 생각하십니까? 6)무엇인가 두려움을 느끼셨습니까? 7)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8)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9)세상에 훌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셨습니까? 10)도무지 무얼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유석춘(2004)의 분류를 참조하여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연고에 의한 모임 참여, 공식적 모임 참여의 3개 변수로 구성하였다. 유석춘(2004)은 모임의 특성에 따라 자발성에 기초한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고에 의한 모임 참여, 시민단체·정당·사회단체 등 공식적인 모임 참여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즉, 모임의 결사방식에 따라 자원적 결사와 비자원적 연고에 의한 연결망으로 구분하고, 자원적 결사에 의한 연결망을 집단의 목표에 따라 다시 동호회 유형과 시민단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자원적 결사에 의한 연결망은 가입과 탈퇴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집단에 가입한 회원은 특정한 이념이나 관심 또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결망의 집단 목표가 사적 관심에 치우친 동호회 유형과 보다 공적 관심에 치우친 시민단체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비자원적 결사, 즉 연고에 의한 연결망은 당사자의 선택보다 생애 과정을 통해 획득한 혈연, 지연, 학연 등 특정 경험의 공유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결정되며,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연결망의 대표적인 사례는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변수는 크게 인구학적 변수와 소득 및 자산변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인구학적 변수에는 성별, 연령, 지역 변수가 포함되었다. 지역변수의 경우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기준), 중소도시, 읍면으로 분류하였다. 소득변수는 가족 총소득, 주택소유, 주택 외 부동산 소유, 현금성 자산 소유, 저축예금성 자산, 주식/펀드 자산, 저축성 보험가입여부를 포함하였다.

## 5.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백분율을 분석하고, 노년기 경제적 복지 수준에 대한 인적자본 변수와 사회자본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정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인구학적 특성, 소득 및 자산 특성, 인적자본 특성, 사회자본 특성은 <표 1>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여성이 57.5%로 남성보다 많은 수준이었으며,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만 72.9세였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대도시 거주자가 3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읍면 거주자 31.3%, 중소도시 거주자 29.0% 순의 지역분포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소득 및 자산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 총소득은 연평균 1,157.9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76.6%가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고 10.9%는 주택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금융자산의 경우, 현금성 자산 평균 보유액은 252.5만원이었고, 저축성 예금 평균 보유액은 71.8만원이었다. 주식/펀드의 평균 보유액은 4.4만원이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0.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인적자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노년기 근로형태별 분포를 보면, 일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가장 많은 82.6%로 나타났고, 이어 자영업 종사자 9.8%, 임금노동 종사자 5.1%, 무급가족노동 종사자가 2.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초등학교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일반적 특성

변수	조작적 정의	빈도(%)	평균(SD)
<b>종속변수</b>			
경제적 복지	동년배에 비하여 느끼는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수준 (최소 0~ 최대 100)		41.56(24.43)
<b>독립변수</b>			
<b>인적자본 변수</b>			
근로형태	현재 응답자가 하고 있는 일의 형태		
일하지 않음(기준)	일하고 있지 않음	2,831(82.6)	
임금노동	급여노동에 종사	173( 5.1)	
자영업	자영업에 종사	337( 9.8)	
무급가족노동	급여 없이 가족 및 친지의 사업에 종사	85( 2.5)	
학력	최종 졸업학교		
초졸 이하(기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2,501(73.0)	
중졸	중학교 졸업	340( 9.9)	
고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	585(17.1)	
<b>건강</b>			
신체적 건강	일생생활수행능력(ADL) 지수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지수의 합		1.41( 3.58)
정신적 건강	CES-D10 척도에 따른 우울증 여부(1=예; 0=아니오)	1,507(44.0)	
<b>사회자본 변수</b>			
<b>도구적 관계망</b>			
자녀의 금전적 지원	용돈·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녀의 수		1.89( 1.78)
자녀의 비금전적 지원	현물·선물(여행, 생활용품 등)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자녀의 수		0.72( 1.35)
형제의 경제적 지원	용돈·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 및 현물·선물 등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형제자매의 수		0.03( .28)
<b>정서적 관계망</b>			
배우자 동거	동거상태의 배우자 있음(1=예; 0=아니오)	2,193(64.0)	
자녀와의 동거	자녀와의 동거 여부(1=예; 0=아니오)	1,377(40.2)	
자녀와의 연락빈도	연간 비동거 자녀가 전화, 편지,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횟수		181.07(174.04)
친구의 정서적 지지	연간 친하게 지내는 주위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129.35(118.20)
<b>사회적 참여</b>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종교·친목·여가 등 자발적 특성을 지닌 모임 참여 여부 (1=예; 0=아니오)	1,997(58.3)	
연고에 의한 모임 참여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참여 여부(1=예; 0=아니오)	332( 9.7)	
공식적 모임 참여	시민단체, 정당 등 공식적 사회단체 참여 여부 (1=예; 0=아니오)	46( 1.3)	

〈표 1〉 계속

변수	조작적 정의	빈도(%)	평균(SD)
<b>통제 변수</b>			
성별			
남성	응답자의 성별이 남성	1,457(42.5)	
연령	응답자의 만 나이		72.87(6.28)
지역			
대도시(기준)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	1,360(39.70)	
중소도시	시도지역 거주	995(29.04)	
읍면	읍면지역 거주	1,071(31.26)	
가족 총소득	연간 가족소득액(만원)		1,157.87 (1,873.46)
자가주택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자가소유 여부(1=예; 0=아니오)	2,627(76.68)	
주택외 부동산 소유	거주주택 외 부당산 소유 여부(1=예; 0=아니오)	374(10.92)	
현금성 자산	50만원 이상예금과 현금 자산의 총액(만원)		252.47 (1,187.10)
저축성예금 자산	정기예금, 적금, 상호부금, 양도성예금, MMF/CMA/MMDA 등 저축성예금의 총액(만원)		71.84 (752.23)
주식/펀드 자산	소유한 주식, 투자신탁(뮤추얼 펀드)의 시가 총액(만원)		4.44 (127.79)
저축성보험 가입	정기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저축 및 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가입 여부(1=예; 0=아니오)	31(0.01)	
N		3,426(100.0)	

졸업 이하 학력을 가진 노인이 73.0%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17.1%, 중학교 졸업이 9.9%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수준을 ADL 지수와 IADL 지수의 합으로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 노인은 평균 1.4개 정도의 일상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수준을 보면, 44.0%의 조사대상 노인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자본 특성을 보면, 평균 약 2명(1.9명)의 자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1명 미만(0.7명)의 자녀로부터 비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전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형제자매 수는 0.03명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

우는 각각 64.0%, 40.2%로 나타났다. 자녀와 연락하는 빈도는 연평균 181.1회로 나타났으며,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는 연평균 129.3회였다. 사회적 참여 수준을 보면, 종교·친목·여가 모임 등 자원에 의한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가 58.3%로 높게 나타났고,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 연구에 의한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는 9.7%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봉사·정당·사회단체 등 공식적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는 1.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 2.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를 규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진단하고자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가 모두 0.1보다 크고 VIF 값이 모두 2이하로 나타나 10이하의 수준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델 I의 경우 수정결정계수(Adjusted R<sup>2</sup>)가 .266으로 나타났다. 모델 I에서는 모든 인적자본 변수와 도구적 관계망 변수를 제외한 사회자본 변수가 종속변수인 노년기 경제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효과를 보면, 성별, 연령, 지역 등 인구학적 변수가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소득 변수에서 가족총소득, 주택소유, 주택 외 부동산 소유, 현금성 자산 소유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변수가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임금노동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경제적 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급가족노동 종사자와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집단에 비하여 경제적 복지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건강수준이 높고 우울증이 없는 집단이 경우 경제적 복지 수준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변수와 노년기 경제적 복지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의 금전적 지원, 자녀의 비금전적 지원, 형제자매의 경제적 지원 변수 등 도구적 관계망

변수는 모두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관계망 변수 중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만이 종속변수와 정적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배우자 동거, 자녀와의 동거, 친구의 정서적 지지는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인구학적 변수 및 소득 변수와 노년기 경제적 복지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학적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면,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경제적 복지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노년기 내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복지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거주 노인에 비해 중소도시 거주 노인의 경제적 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읍면 거주 노인 집단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 및 자산 변수의 경우, 가족총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외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경제적 복지 수준이 높았다. 현금성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경제적 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축성예금이나 주식/펀드 자산, 저축성 보험 가입 변수는 경제적 복지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대한 인적자본 변수와 사회자본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리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통제변수만 포함한 모델 II-1의 수정결정계수는 .171, 통제변수와 인적자본 변수를 포함한 모델 II-2의 수정결정계수는 .257, 통제변수와 사회자본 변수를 포함한 모델 II-3의 수정결정계

〈표 2〉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모델 I		모델 II-1		모델 II-2		모델 II-3	
	전체		통제변수		인적자본과 통제변수		사회자본과 통제변수	
	B	S.E.	B	S.E.	B	S.E.	B	S.E.
<b>인적자본 변수</b>								
근로형태								
일하지 않음(기준)								
임금노동	2.049 **	1.703			1.557	1.708		
자영업	3.552 *	1.319			3.444 **	1.324		
무급가족노동	5.310	2.401			5.754 *	2.388		
학력								
초졸 이하(기준)								
중졸	4.954 ***	1.268			5.562 ***	1.266		
고졸 이상	7.642 ***	1.133			8.440 ***	1.092		
건강								
신체적 건강수준	-.517 ***	.112			-.573 ***	.109		
우울증	-10.951 ***	.771			-11.406 **	.766		
<b>사회자본 변수</b>								
도구적 관계망								
자녀의 금전적 지원	.325	.230					.085	.239
자녀의 비금전적 지원	.324	.278					.189	.288
형제의 경제적 지원	-1.703	1.286					-1.967	1.344
정서적 관계망								
배우자 동거	.679	.918					2.152 *	.947
자녀와의 동거	1.312	.817					.720	.850
자녀와의 연락빈도	.007 **	.002					.011 ***	.02
친구의 정서적 지지	-.006	.003					-.003	.003
사회적 참여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3.649 ***	.780					5.508 ***	.803
연고에 의한 모임 참여	.792	1.336					4.282 **	1.361
공식적 모임 참여	1.585	3.147					4.799	3.280
<b>통제 변수</b>								
성별								
남성	-2.644 **	.916	1.353	.784	-2.491 **	.832	-.146	.889
연령	.138 *	.066	-.180 **	.061	.111	.063	-.046	.064
지역								
대도시(기준)								
중소도시	2.733 **	.882	2.464 **	.929	2.796 **	.884	2.379 *	.919
읍면	.844	.969	-1.378	.953	.507	.944	-.643	.980
가족 총소득	.002 **	.000	.002 ***	.000	.002 ***	.000	.002 ***	.000
자가주택 소유	13.456 ***	.894	16.178 ***	.922	14.122 ***	.885	14.877 ***	.928
주택외 부동산 소유	6.750 ***	1.235	9.072 ***	1.279	7.366 ***	1.231	7.837 ***	1.274
현금성 자산	.002 ***	.000	.003 ***	.000	.002 ***	.000	.002 ***	.000
저축성예금 자산	.001	.001	.001 *	.001	.001 *	.001	.001	.001
주식/펀드 자산	.001	.003	.002	.003	.001	.003	.002	.003
저축성보험 가입	3.002	3.818	5.033	4.042	2.545	3.836	5.349	3.989
상수	16.600**	5.071	37.139***	4.561	22.545***	4.741	21.903***	4.952
Adjusted R <sup>2</sup>		.266		.171		.257		.195
F		45.377***		65.564***		66.925***		40.736***
N					3,426			

\*\*\* p < 0.001, \*\* p < 0.01, \* p < 0.05

수는 .195로 나타났다. 연구모델에 따라 달라지는 독립변수의 수를 고려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인적자본 변수와 사회자본 변수의 상대적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수정결정계수의 크기 차이를 보면, 모델 II-1과 모델 II-2의 수정결정계수 차이(.086)가 모델 II-1과 모델 II-3의 수정결정계수 차이(.024)보다 크므로 경제적 복지에 대한 인적자본 변수의 설명력이 경제적 복지에 대한 사회자본 변수의 설명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

성별, 연령수준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효과의 성차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효과의 성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남성노인 집단(n=1,457)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모델 III-1의 경우 수정결정계수가 .250이었으며, 여성노인 집단(n=1,969)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모델 III-2의 경우 수정결정계수는 .277로 나타났다.

우선 인적자본 변수의 효과를 분석하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의 경제적 복지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과 건강으로 나타났다. 근로형태 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보면, 남성노인의 경우 일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임금노동이나 무급가족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복지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집단의 경제적 복지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임금노동, 자영업, 무급가족노동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노인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집단에 비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집단의 경제적 복지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학교 졸업 집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노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 집단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집단 모두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집단에 비해 경제적 복지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변수의 경우에는 남녀 노인 모두 신체건강 수준이나 정신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복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자본 변수가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경우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외에도 자녀의 비금전적 지원,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친구의 정서적 지지가 경제적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반면,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자본 변수 중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변수가 유일하게 경제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인 인구학적 변수와 소득 및 자산 변수의 경우,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저축성 예금 자산 변수가 유일하게 여성노인의 경제적 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변수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집단 모두에 유사한 효과를 지녀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즉,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지역, 가족총소득, 주택소유, 주택외 부동산 소유, 현금성 자산 소유 등이 공통적으로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식/펀드 자산, 저축성 보험 가입은 경제적 복지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성별·연령별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모델 III-1		모델 III-2		모델 III-3		모델 III-4	
	남성		여성		전기노인(65~74세)		후기노인(75세 이상)	
	B	S.E.	B	S.E.	B	S.E.	B	S.E.
<b>인적자본 변수</b>								
근로형태								
일하지 않음(기준)								
임금노동	3.904	2.102	-.448	3.136	2.336	1.790	-5.626	6.845
자영업	4.786 **	1,632	1.346	2.457	3.213 *	1.478	5.836	3.068
무급가족노동	6.795	7.275	4.456	2.568	4.891	2.663	5.036	5.784
학력								
초졸 이하(기준)								
중졸	3.272	1.734	6.238 **	1.925	4.885 **	1.440	5.658 *	2.737
고졸 이상	7.807 ***	1.418	8.125 ***	2.039	7.907 ***	1.315	6.465 **	2.305
건강								
신체적 건강수준	-.571 ***	.166	-.458 **	.152	-.523 **	.183	-.480 **	.148
우울증	-8.799 ***	1.274	-12.306 ***	.969	-10.325 ***	.963	-11.679 ***	1.310
<b>사회자본 변수</b>								
도구적 관계망								
자녀의 금전적 지원	.321	.365	.314	.295	.042	.297	.747 *	.372
자녀의 비금전적 지원	-.387	.449	.827 *	.354	.044	.357	.644	.449
형제의 경제적 지원	-1.151	1.652	-3.183	2.107	-1.182	1.454	-3.586	2.797
정서적 관계망								
배우자 동거	-3.325	1.938	1.577	1.056	1.174	1.125	-.822	1.666
자녀와의 동거	2.104	1.286	.531	1.061	.524	1.011	2.361	1.433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006	.004	.009 **	.003	.008 **	.003	.005	.004
친구의 정서적 지지	.000	.005	-.010 *	.004	-.007	.004	-.002	.006
사회적 참여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4.022 **	1.266	3.469 ***	.990	3.236 **	.972	4.813 ***	1.332
연고에 의한 모임 참여	1.550	1.568	.434	2.805	.290	1.505	4.073	2.990
공식적 모임	-.284	4.258	3.954	4.788	3.424	3.533	-2.811	7.086
<b>통제 변수</b>								
성별								
남성					-3.558	1.097	-.596	1.724
연령	.171	.109	.144	.084	-.015	.166	.299 *	.149
지역								
대도시(기준)								
중소도시	2.864 *	1.399	2.406 *	1.135	2.111	1.086	4.106 **	1.532
읍면	1.599	1.569	.253	1.234	1.647	1.214	-.311	1.628
가족 총소득	.001 ***	.000	.002 ***	.000	.002 ***	.000	.002 ***	.000
자가주택 소유	14.396 ***	1.466	12.649 ***	1.128	12.593 ***	1.123	14.938 ***	1.515
주택외 부동산 소유	6.374 ***	1.621	7.859 ***	1.987	6.840 ***	1.437	7.196 **	2.470
현금성 자산	.002 ***	.000	.003 ***	.001	.002 ***	.000	.003 **	.001
저축성예금 자산	.000	.001	.002 ***	.001	.001	.001	.001	.001
주식/펀드 자산	.001	.003			.001	.003	.004	.042
저축성보험 가입	-.627	5.324	7.062	5.539	1.985	4.024	13.439	12.303
상수	13.409	8.484	17.004**	6.478	28.899*	11.598	.120	12.133
Adjusted R <sup>2</sup>	.250		.277		.248		.289	
F	18.981***		30.059***		27.355***		18.199***	
N	1,457		1,969		2,243		1,183	

\*\*\* p &lt; 0.001, \*\* p &lt; 0.01, \* p &lt; 0.05

## 2)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효과의 연령차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 75세 미만 노인을 포함하는 전기노인 집단과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는 후기노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기노인 집단(n=2,243)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 III-3은 수정결정계수가 .248이었으며, 후기노인 집단(n=1,183)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 III-4는 수정결정계수가 .289로 나타났다.

우선 연령수준별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인적자본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형태는 전기노인 집단에만 경제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기노인의 경우 일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집단의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기노인의 경우 근로형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학력과 건강 변수는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집단 모두에서 경제적 복지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수준별 사회자본 변수의 효과를 보면,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모두 공통적으로 경제적 복지와 유의한 관계를 갖는 변수는 자원의 의한 모임 참여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전기노인의 경우에는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빈도가 경제 복지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후기노인의 경우에는 자녀의 금전적 지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수준에 따른 통제변수의 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노인의 경우 경제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기노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복지 수준이 증가하였고, 대도시 거주 노인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경제적 복지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자산 특성을 보

면,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모두 가족총소득, 자가주택, 주택외 부동산소유, 현금성자산 변수가 경제적 복지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효과의 지역별 차이

조사대상을 대도시 거주노인, 중소도시 거주노인, 읍면 거주노인으로 나누어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를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도시 거주노인 집단(n=1,360)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 III-5의 경우 수정결정계수가 .2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소도시 거주노인(n=995)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 III-6의 수정결정계수가 .272로 높았다. 읍면 거주 노인(n=1,071)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 III-7의 수정결정계수가 .258로 가장 낮았다.

먼저 지역에 따른 인적자본 변수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면, 근로형태 변수가 유일하게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거주노인 집단의 경우, 일하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자영업이나 무급가족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경제적 복지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도시 거주노인이나 중소도시 거주노인 집단의 경우 근로형태가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과 건강변수는 이상 3집단 모두 경제적 복지에 대해 공통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지역에 따른 사회자본 변수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면, 자녀의 금전적 지원,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금전적 지원 수준은 읍면 거주노인 집단의 경제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노

〈표 4〉 지역별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모델 III-5		모델 III-6		모델 III-7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B	S.E	B	S.E	B	S.E
<b>인적자본 변수</b>						
근로형태						
일하지 않음(기준)						
임금노동	2.014	2.373	1.807	3.053	5.225	4.265
자영업	-1.469	2.609	4.793	2.871	6.689 ***	1.853
무급가족노동	-2.365	8.755	9.707	6.419	7.103 *	2.774
학력						
초졸 이하(기준)						
중졸	3.598	1.892	4.846 *	2.190	7.330 **	2.754
고졸 이상	7.074 ***	1.720	5.687 **	1.966	12.288 ***	2.492
건강						
신체적 건강수준	-.358 *	.173	-.813 ***	.210	-.473 *	.202
우울증	-11.665 ***	1.262	-11.814 ***	1.416	-8.634 ***	1.333
<b>사회자본 변수</b>						
도구적 관계망						
자녀의 금전적 지원	-.371	.407	.154	.447	.953 **	.354
자녀의 비금전적 지원	.446	.549	.291	.487	-.076	.426
형제의 경제적 지원	-1.975	2.157	.145	2.828	-1.791	1.929
정서적 관계망						
배우자 동거	-.505	1.466	-.475	1.630	2.920	1.684
자녀와의 동거	.926	1.274	-.662	1.455	3.131	1.585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011 **	.004	.007	.004	.004	.004
친구의 정서적 지지	-.003	.005	-.007	.006	-.005	.006
사회적 참여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3.389 **	1.269	3.639 *	1.468	3.146 *	1.357
연고에 의한 모임 참여	-2.245	2.130	4.010	2.353	.727	2.519
공식적 모임 참여	-.087	4.386	3.900	5.404	1.628	8.460
<b>통제 변수</b>						
성별						
남성	-2.489	1.462	-3.191	1.647	-2.183	1.663
연령	.103	.106	.290 *	.123	.088	.115
가족 총소득	.001 ***	.000	.002 ***	.000	.003 ***	.001
자가주택 소유	14.806 ***	1.328	11.984 ***	1.514	14.637 ***	2.128
주택외 부동산 소유	19.226 ***	2.618	5.612 *	2.454	.701	1.735
현금성 자산	.001 **	.000	.003 **	.001	.003 ***	.001
저축성예금 자산	.000	.001	.003 *	.001	.002 **	.001
주식/펀드 자산	.001	.003	.010	.010	.026	.033
저축성보험 가입	16.958 **	5.579	-6.251	7.669	-18.270 *	7.564
상수	20.177*	8.075	12.442	9.448	14.718	9.028
Adjusted R <sup>2</sup>	.298		.272		.258	
F	23.167***		15.272***		15.346***	
N	1,360		995		1,071	

\*\*\* p < 0.001, \*\* p < 0.01, \* p < 0.05

인 집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빈도는 대도시 거주노인 집단의 경제적 복지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나, 중소도시나 읍면 거주 노인 집단의 경제적 복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 변수는 이상 3집단의 경제적 복지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가 지역별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면, 성별,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득 및 자산 변수 가운데 주택 외 부동산, 저축성예금, 저축성보험의 경우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택 외 부동산 소유 여부는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 노인의 경우 경제적 복지에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나, 읍면 거주노인의 경제적 복지와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축성예금 자산이 많을수록 중소도시나 읍면거주 노인의 경우 경제적 복지 수준이 증가하였으나, 대도시 거주노인의 경제적 복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 보험 가입 여부는 중소도시 거주 노인의 경제적 복지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도시나 읍면지역 거주노인의 경제적 복지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 V. 결론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경제기반의 상실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감소와 사회적 연결망의 축소로 인해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이론과 사회자본 이론을 토대로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노년기의 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상대적 효과와 함께

성별·연령별·지역별 특성에 따른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에 대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 변수와 사회자본 변수는 소득 및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하는 경우에도 노년기 경제적 복지수준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정결정계수를 비교한 결과, 노년기 경제적 복지수준에 대하여 인적자본 변수가 사회자본 변수보다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연령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인적자본 변수와 사회자본 변수가 노년기 경제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노년기 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투자정책으로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노인 개인의 복지수준 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적절한 사회투자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 노년기 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인적자본은 경제적 활동과 관련하여 활용될 수 있는 개인의 지식, 기술, 역량 등의 속성으로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뿐 아니라 직장, 지역사회, 제도, 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모든 사회 구성원에 대하여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고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에 이어 성인기와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발달단계마다 단절 없는 인적자본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접근이 강조된

다. 이에 본 연구결과가 노년기 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한 인적자본의 투자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고용목표 집단의 세분화된 욕구를 반영하는 다양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노년기에 임금노동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일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적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급가족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일하지 않는 노인 집단과 경제적 복지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일반적으로 생산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만 65세 이상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결과임을 고려할 때, 노년기 근로형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제적 복지에 대한 효과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괜찮은” 일자리 공급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하겠다. 또한 이는 최근 고령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령차별금지 법 제화와 정년 연장을 위한 지원제도의 신설과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규제 완화 등을 통한 정년제도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근로형태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효과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남성 노인 집단과 전기노인 집단, 읍면 거주 노인의 경우에는 근로형태가 개인의 주관적 경제적 복지수준을 증진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집단을 중심으로 일자리 제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성별분업 등으로 인한 과거 취업경험의 차이, 연령에 따른 취업욕구와 취업연령 규범의 영향, 지역사회의 고령자 고용여건의 차이 등에 기인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년기 경제적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노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용정책 대상의 특성에 따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와 함께 근로형태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욕구를 토대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따르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세심한 사회투자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이전 취업 경험 내용의 성차를 극복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연령별 신체적 조건에 따른 노동 강도의 세기, 지역별 고용환경 특성 등을 고려한 현실적으로 노년기 경제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수준은 모든 집단에서 중요한 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한 인적자본으로 나타나 노년기에 적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확대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고령화 시대의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 교육 훈련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통한 노인 일자리 지원 정책인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보전수당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내실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개발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역특성에 맞추어 확대 제공할 계획인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개발 단계에서부터 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과정을 연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성별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경제적 복지에 대한 교육수준의 효과 분석에서 나타난 차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남성이 나 대도시 거주 노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노인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과 경제적 복지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 단계에서 이러한 대상별 특성에 따른 교육수요를 고려할 것을 시사한다 하겠다.

셋째,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보편적으로 확대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연령·지역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에 관계없이 건강은 노년기 경제적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신체적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하여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 치매 등의 질병관리 뿐 아니라 사전예방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노인 대상 운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비만, 특정질환 등에 노출될 위험을 피하고 스스로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검진 등 사전적·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제적 건강투자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인의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하여 노년기 자살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을 치료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의료지원과 함께 다양한 정서적·도구적 지원 방안을 여가프로그램 등과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노년기 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자본 투자

노년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사회자본의 형성과 투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노년기 개인의 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한 인적자본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사회자본의 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자본 투자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노년기 경제적 복지에 기여하는 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년기 경제적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가족 내 세대간 정서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별 가족이 정서적·도구적 관계망 등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 및 가족생활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정부정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족상담이나 가족생활 프로그램의 내용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노년기의 성별·지역별·연령별 사회적 관계망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도구적 지원이나 자녀와의 동거는 경제적 복지에 대해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비동거 자녀의 정서적 지지는 경제적 복지감에 대해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나 동거에 비해 자녀와의 빈번한 연락을 통해 형성된 정서적 관계망 수준이 경제적 복지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전히 우리사회가 상대적으로 세대간 가치관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전통적 가족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은기수·이윤석, 2005), 점차 노인 세대가 성인자녀와 동거하거나 동거를 원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가족 내에서 노인의 역할이 축소되는 현상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녀 동거가 경제적 복지 수준에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것은 노인이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즉 노부모의 권위와 지배의 재조정에 따른 가족 내적 갈등과 함께 자녀세대의 부양에 대한 비용 지각을 상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족 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회투자 전략의 방향으로 정서적·도구적 지원체계로 기능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효과 분석을 기초로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75세 이상 후기노인 집단과 읍면에 거주하는 농촌노인의 경우 자녀의 금전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복지 수준이 높고, 여성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연락빈도와 함께 비금전적 지지가 높을수록 경제적 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짧은 기간에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한 한국사회의 성별·세대별·지역별 가족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자녀와의 동거가 경제적 복지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의 동거가 경제적 자원 소유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보인 김정석(2003)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정서적 지지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각기 다른 생애과업을 수행하는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 적응을 지지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노년기 경제적 복지수준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에서 보이는 성차 역시 사회투자정책의 방향성 정립에 있어 중요하다.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에 비해 도구적·정서적 관계망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특히 전체 빈곤노인 중 여성노인 비율의 증가로 인해 정책적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노년기 성별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성노인과 차별적인 여성노인의 생활사적 경험에 대한 세심한 이해는 정책 수립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족중심적인 환경에서 사회적 연계망을 확대하기 어려운 생활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노인(정경희, 1997; 최선화, 1999)의

노후 적응 및 사회적 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를 위한 사회 관계망 형성을 강화하는 사회투자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에 관계없이 경제적 복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자원에 의한 모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보편적 정책 투자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계망을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여가, 취미, 종교활동 등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모임을 통해 이웃, 친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상호교환할 수 있는 관계망의 확장을 통한 개인의 경제적 복지 수준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노년기 사회적 참여를 저해하는 인식수준, 교통여건 등 다양한 제약 요인을 해소하여 다양한 취미생활이나 여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적인 삶의 질 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년기 사회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연결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공식적 모임 참여 뿐 아니라 정당, 사회단체, 자원봉사 등 공식적 모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노년기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고 소외감을 극복하며 축적된 노년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함은 물론, 보다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연고에 의한 모임이 갖는 배타성을 극복하고 성별·연령별·지역별 차이를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혈연·지연·학연 등 전통적인 사회구성 원리에 의한 연결망은 물론 자원에 의한 연결망 등 서구적 사회구성 원리에 의한 연결망은 다양한 종류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망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자본의 총량이 증가함은 물론 질적 구성

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유석춘·장미혜, 2002) 특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정당 등 공식적인 사회적 모임에 대한 참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참여 경로와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실제로 한국사회에서는 공식적인 사회단체의 경우에도 여전히 전통적인 동원 전략을 사용하여 모임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임현진·공석기, 2001), 조직의 지향이나 속성에 따라 다른 집단과의 연대와 조직의 개방성, 의사결정 구조 측면에서 개방적이고 느슨한 연결망 보다는 폐쇄적 형태를 보이고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민재, 2004). 따라서 노년기에 다양한 사회적 참여를 통해 개인에게 유용한 자원을 형성하고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 및 정치체계와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시민문화 형성을 통한 사회자본의 축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회 및 정치제도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사회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노년기 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사회투자정책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에서 노년기 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득보장프로그램의 바탕 위에 새로운 사회투자정책으로서 노년기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투자를 통해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적절한 수준의 정책적 투자를 검토하는 것은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발생을 최소화하며 문제발생 이전에 예방적 투자를 함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성을 고려한 적절한 정책 대안이라 하겠다.

이에 향후 후속 연구로서 평생교육, 직업훈

련, 건강 등에 대한 정책의 주요 대상을 빙곤층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지 않는 보편적인 인적자본 투자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함은 물론, 노년기 가족관계의 정립, 이웃·친구·지역사회 내 사회적 연계망 강화, 사회적 참여 확대 등 가족 및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정책 시행계획에 이러한 정책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인기에 영합하는 일회적인 이벤트 중심의 정책보다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자본이 지난 사회경제적 효용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심화하기 위하여 노년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참여수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문 유형을 포함하는 세밀한 척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패널조사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 자본의 역동적 변화를 분석할 필요성도 높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고령자패널은 물론, 한국노동패널, 여성가족패널 등 최근 구축되고 있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패널 조사에서도 사회자본 속성을 지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문 문항을 포함하여 사회자본 연구가 보다 심화 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강이주, 김영신, 허경옥(2006). 알기 쉬운 가계경제학. 서울 : 신정.
- 2) 구인자(2001). 노인의 사회무용참여와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지지 및 건강과의 관계. 대한무용학회지 29, 7-20.
- 3) 김미혜, 정진경(2003). 노인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현신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

- 활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4(8), 221-243.
- 4) 김수정(2006). 노인의 종교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 사회적지지 및 실존적 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3, 29-50.
  - 5) 김정석(2003). 노후생활에서의 성별 차이-경제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6(1), 59-77.
  - 6) 김혜원(2007). 선진국에서의 사회투자 논의와 한국에의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5(5), 1-3.
  - 7) 노자경, 최은숙(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 측정 및 관련 변수 연구 : 경기도 용인, 이천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1), 13-35.
  - 8) 대한민국정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9) 박성희, 이지현(2006). 노인의 무력감,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지역사회 간호학회지* 17(1), 65-73.
  - 10) 손신영(2006). 농촌 노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 *지역사회 간호학회지* 17(2), 176-185.
  - 11) 안경숙(2005). 노인부부가구·노인독신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한국노년학* 25(1), 1-19.
  - 12) 양재진(2007). 사회투자국가의 사회정책 패러다임과 사회투자정책 : 영국과 덴마크의 사례. *국제노동브리프* 5(5), 4-14.
  - 13) 유석준(2004). 한국의 사회적 자본 : 연고 집단. 이온죽 엮음. 신뢰 : 지구촌 시대의 사회적 자본. 서울 : 집문당.
  - 14) 유석준, 장미혜(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 15) 유성호(1997). 자녀수와 결혼한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후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7(2), 37-49.
  - 16) 윤민재(2004). 한국 사회운동단체의 조직과 사회자본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사회이론 봄/여름.
  - 17) 윤진(1985). 성인·노인 심리학. 중앙적성 출판사.
  - 18) 은기수, 이윤석(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 19) 이상구(1998). 노인의 여가스포츠 참가와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7(4), 160-174.
  - 20) 이승미(2002). 한국 노인의 사회계층별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원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3), 15-157.
  - 21) 이신숙(1997). 노인이 경험하는 긴장상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완충효과 :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4), 199-210.
  - 22) 이신숙, 차용은(2003). 기능손상노인의 우울감과 가족지지, 공적지지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3), 165-180.
  - 23) 이영현, 나영선, 김안국, 유한구, 김미란, 이재혁(2006).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4) 이정화, 한경혜, 박공주, 이한기(2003).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지원망 특성이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9(3), 1-7.
  - 25) 임채원(2006).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파주* : 한울.
  - 26) 임현진, 공석기(2001). *한국사회와 신사회 운동. 권태환 외 엮음. 신사회운동의 사회학*. 서울 : 서울대출판부.
  - 27) 장인순(2006). 일부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2), 130-140.
  - 28) 전길량, 김정옥(2000). 배우자 사별 노인의

-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1), 155-170.
- 29) 전혜정(2004a). 미국노인의 사회적 지원제 공과 정신건강 : 종단적 자료분석. 한국노년학 24(1), 89-105.
- 30) 전혜정(2004b). 한국 노인의 비공식적 지원 제공과 정신건강. 노인복지연구 26, 337-361.
- 31) 정경희(1997). 여성노인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3.
- 32) 조유향(1992). 노인보건. 서울 : 현문사.
- 33) 조윤주(2007). 생산적 활동과 이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0(2), 23-44.
- 34) 채수원, 오경옥(1992).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2(4), 552-568.
- 35) 최선희(1999).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 원인. 한국가족복지학 3, 187-211.
- 36) 통계청(각년도). 사회통계조사.
- 37) 한국노동연구원(2005).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 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욕구조사.
- 39) 현은민(1996).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 도시와 지방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85-105.
- 40) Arrow, K. J. (2000). Observations on social capital. In P. Dasgupta & I.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 A multifaceted perspective, 3-5. Washington, DC :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41) Schultz, T. W. (1981). Investing in peopl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42) Bryant, K. (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43) Beck, A. T. (1967). Depression : care and treatment.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44) Becker, G. (1964). Human capital.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45)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 Greenwood Press.
- 46) Burkhauser, R.V. & Duncan, G. J. (1988). Life events, public policy and the economic vulnerability of children and the elderly. In J. L. Palmer and I. V. Sawhill (Eds.). The Vulnerable, 55-87. Washington DC : Urban Institute Press.
- 47)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48) Coleman, J. S. (2000).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In P. Dasgupta & I.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 A multifaceted perspective, 13-39. Washington, D.C. :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49) Duncan, G. J., Boisjoly, J., & Smeeding, T. (1996). Economic mobility of young workers in the 1970s and 1980s. Demography 33, 497-509.
- 50) Field, J. (2003). Social capital. London & New York : Routledge.
- 51) Grootaert, C., & Bastelaer, T. (2001). Understanding and Measuring Social Capital : A Multidisciplinary Tool for Practitioners. Washington, D. C : World Bank.

- 52) Hawkins, R. L. (2003). How low-income single mothers leave welfare for economic self-sufficiency : The role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 53) Knack, S., & Keefer, P.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impact?.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 1252-1288.
- 54) Lin, N. (2001). Social capital :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55) MacDonald, M. & Douthitt, R. A. (1992). Consumption theories and consumers' assessment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6, 243-261.
- 56) Mincer, J. (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ew York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57) Morgan, J. N., & Duncan, G. J. (1982). Making your choices count : Economic principles for everyday decisions.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58) Narayan, D., & Pritchett, L. (1999). Cents and sociability : Household income and social capital in rural Tanzania.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47, 871-897.
- 59)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60) Powell, M. A., & Parcel, T. L. (1997). Effects of family structure on the earnings attainment process : Differences by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419-433.
- 61)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 Simon and Schuster.
- 62) Rice, A. S., & Tucker, S. M. (1986). *Family life management*. New York : Macmillan.
- 63) Schultz, T. W.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1-17.
- 64) The Brookings Institution(2006). KDI 역 (2006). 해밀턴 프로젝트 : 기회와 번영, 성장을 위한 경제전략. 서울 : KDI 경제 정보센터.
- 65) Weicher, J. C. (1999). Some income-measurement issu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9, 29-33.
- 66) Wilhelm, M. S., Iams, D. R., & Rudd, J. (1987). Husband and wife agreement on indicator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1), 13-22.
- 67) Willigen, M. V. (2000). Differential benefits of volunteering across the life course. *Journal of Gerontology* 55(5), 308-318.
- 68) World Bank (1998). The initiative defining, monitoring, and measuring social capital : Overview and program description. Social Capital Initiative Working Paper no. 1. World Bank, Washington D. C.

- 접수일 : 2008년 4월 15일
- 심사일 : 2008년 4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5월 21일